

ADHD성향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효과: 취학 전 아동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란** · 장성호***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DHD 성향 취학 전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력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치료의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한 C어린이집에 재학 중이며 과잉행동과 부주의 행동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보였던 6세 남아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2019년 3월 5일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총16회기 진행하였고 미술치료프로그램 구성은 초기, 중기, 종결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첫째, ADHD 성향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주의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연구 참여아동의 K-ARS 척도 사전검사점수는 26점에서 사후검사 18점으로 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별 관찰기록에서도 연구 참여아동은 의미 있는 상호소통과 자기절제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의 감소와 부주의의 감소가 상이했다. 다양한 매체와 과도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ADHD 성향 아동은 부주의성이 상승했다. 더불어 선호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평소 흥미 있던 작업진행은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ADHD 아동에게 다양한 매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둘째, 과잉행동과 충동성 감소에 자율성을 부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ADHD 성향 취학 전 아동 대상의 미술치료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미술치료, ADHD, 취학 전 아동

논문 투고일: 2020. 1. 9. 최종심사일: 2020. 2. 20. 게재확정일: 2020. 3. 11.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lan, 15-1, Dulle 15-gil,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joy469@hanmail.net

I. 서론

우리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최첨단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 가족구조변화 및 가족해체 등은 아동의정서, 심리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배숙경 외, 2016; 신소영 외, 2016; 정여주, 2016).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과잉행동과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이미경, 201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아동 및 청소년 중 5.3%, 미국 아동의 3-7%가 ADHD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00). 우리나라에서도 ADHD 환자 수는 전체 환자 중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의 4배로 나타나고 전체 환자 중 10대 환자가 30,174명으로 57%를 차지하고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2016년 대비 2017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환자는 52,944명으로 진료인원 7.4%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2015년 343억원 2017년 378억원이 지급되었다. 2017년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10-14세 환자가 145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5-49세 99억 5천만원, 5-9세 85억 6천만원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평균진료비는 71만 4,298원이었는데 15-19세 환자의 진료비가 81만 5,867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2017년)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4년새 30% 증가하였다. 우울증 환자는 2016년부터 2020년 4년 새 서울 청년 우울증 환자는 80.8%에 해당 한다.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20.5회 병원 내원하고 진료비 3.979억원 지급되고 2019년 1.164.8만 내원 진료비 5.951억원 지급되었다. 2019년 상반기 556.1만회 내원 치료비 2.81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613.8만회 내원 병원비 3327억으로 10.4%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심사평 통계 2020년 자료).

ADHD는 학령기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과 장애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잉행동(hyperactivity), 충동성(impulsivity), 주의력결핍(inattention)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때 진단된다. ADHD 아동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의력 결핍으로 낮은 학업성취와 잦은 실패를 경험한다(윤은주, 이미옥, 2010). 이로 인해 교사 및 부모, 또래와 갈등을 빚게 되고 지속되는 부정적 피드백으로 낮은 자존감, 소심한 성격 그리고 위축된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한다(김미경 등, 2007). ADHD의 주

증상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치료가 되지 못한 ADHD 아동의 70-80%는 청소년기 이후에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위 및 물질남용 등의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것을 감안하면 ADHD는 조기 치료 및 개입이 중요하다(박완주·박신정·황성동, 2015; 정명숙·박영신·정현희, 2015).

이와 같이 ADHD 조기 치료 및 개입의 중요성과 ADHD 최초 증상이 취학 전 아동기부터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ADHD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주로 학령기인 10세 전후에 이루어지고 있다(윤치연, 2003). 이는 학습의 구조화와 대인관계 확장으로 인해 보다 높은 주의집중력과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학령기에 이르러 ADHD 증상으로 인한 문제가 더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미경, 2014). ADHD의 보편적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행동수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은 증상과 문제행동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권석만, 2014). 약물치료는 집중력을 개선하고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DuPaul & Stoner, 2003), 충동성을 낮추어 아동의 통제력과 과제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Rappoport et al. 1988). 행동수정 역시 강화와 처벌 및 보상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권석만, 2014; Mash & Wolfe, 1999), 지능검사 점수와 학업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Meichenbaum & Goodman(1971)은 약물치료의 경우,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뿐 아니라(안동현·김세실·한은선, 2004; David & Stein, 2012)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장기적 효과 면에서는 부정적임(Pelham & Gnagy, 1999; 배주영, 2011)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심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ADHD 아동의 경우, 행동수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르는 반복된 훈련실행이 불가능하며(Barkley, 1990), 치료실 안에서의 훈련이 가정 및 학교에서 가시적 효과를 보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치료의 지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Sprafkin & Rubenstein, 1982). 더불어 행동수정 역시, ADHD 아동의 심리, 정서적 부분이 방치되는 것(이미경, 2014)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리하면, 약물치료와 행동수정은 다양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지속성 및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ADHD가 인간 정서발달과정에서 내적욕구의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이채영·최은영, 2007)과 더불어 ADHD 치료를 위한 정서, 심리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이미경, 2014).

그 중 정서적 갈등과 억압을 안전하게 표출하도록 돕는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김동연, 2000; 이황은, 2006; 김응갑·이근매, 2007; 김선정, 2010)가 보고되면서 ADHD 아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소영과 송현중(2016)의 연구에 따르면, ADHD 문제 감소를 위한 중재 방법 관련 연구는 2016년 기

준 총 48편으로 미술치료 방법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미술재료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내면화를 도모함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고(송찬원·김경민·변찬석, 2006), 아동의 미숙한 언어표현의 한계를 보완하여(김선현, 2011),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미술작품과 창작과정 및 작품에 대한 감상 및 표현 등을 근거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기정희 등, 2011). 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미술매체는 의식의 통제를 적게 받으면서 내담자의 감각을 자극하여 내면의 자기표현을 촉진시킨다(이근매·최인혁, 2008). 또한, 표현된 내면의 감정은 자기인식과 수용과정을 통해 자기통찰과 자발성을 향상시켜 부정적 감정의 환기를 도모한다(최영희·이미옥, 2004). 특히, 미술치료의 다양한 매체와 비구조화된 활동은 충동성과 과잉행동 특성이 있는 ADHD 아동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시켜 참여 동기를 높여줄 수 있다. 이는 치료의 지속성에 긍정적 요인을 작용하게 되어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의 효과성을 담보하게 된다(이미경, 2014). 더불어 지속되는 부정적 피드백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형성된 ADHD 아동의 억압된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에너지로 표현하게 하는 미술치료의 승화작용은 ADHD 아동의 정서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오가영·이영환, 2005, 이황은, 2006; 서정훈·고영란, 2011). ADHD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과 매체 등이 편향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미경(2014)의 ADHD 아동의 미술치료에 대한 동향분석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86.7%)으로 진행되었으며, 연필(70%)과 점토(56.7%) 등의 매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정서적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들은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서영훈·고영란, 2011)와 긴장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했다는 연구(최영희·이미옥, 2004)가 있었다. ADHD 문제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로는 주의력과 과잉행동 교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변찬석·오난영, 2004; 김인홍, 2006; 송찬원 외, 2006; 송정인·신지현, 2011)와 공격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오가영·이영환, 2005), 충동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이황은, 2006)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ADHD 아동에게 미술치료가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며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과 매체 등에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ADHD는 조기 치료와 개입의 중요하며 이미 취학 전에 그 증상이 발현되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ADHD 성향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

로 미술 치료적 접근의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ADHD 성향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행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ADHD 성향 취학 전 아동 대상의 미술치료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ADHD 성향 취학 전 아동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에 미술치료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개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학령전기 및 취학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의력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함을 보인다. 또한, 행동에 대한 억제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과다한 활동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유용운, 2008. 김유진, 2007; 임지향 외, 2015; Barkley, 1990). 즉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아동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한곳에 착석이 어렵고 조용한 활동이나 정적인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지나치게 타인에게 말을 걸어 수다스럽게 말하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기도 한다.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고 다른사람의 활동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태연하며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놀이할때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 종종 나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학업이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며 과제를 체계화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과제를 싫어하고 외부에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 활동

에 필요한 중요한 물건을 쉽게 잊어버린다. ADHD의 발병원인으로서는 크게 4가지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ADHD 발병원인의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며, 두 번째는 뇌손상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세 번째는 양육방식이나 가정환경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원인이다. 먼저 유전적 요인이 ADHD의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Biederman(1987)은 부모와 자녀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ADHD의 약 80%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된다고 주장했다.

가족이나 형제가 ADHD일 경우, 일반아동보다 4-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ADHD의 유전가능성은 형제가 ADHD 경우 일반 아동보다 발병률이 5배가 많은 가능성이 높으며 1급 가족일 경우 ADHD 발병률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력에서 부모의 알콜 중독, 인격, 기분, 불안장애가 있을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란성 쌍쌍아보다 일란성 쌍쌍아가 발병률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ADHD는 부모와 자녀와의 유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평균으로 80%환경이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 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ADHD가 발병될 수 있다. 인간의 뇌 회로에서는 감각, 지각, 정서, 조절력, 신체적,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신경계의 전달물질을 생성하고 전달하여 (Nelson, 2000)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DHD 아동의 뇌를 관찰해 보면 전두엽 부위의 혈류량 이상이 보고되기도 하며 (김봉희 외, 2003), 도파민의 부족이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많은 신경전달물질이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한 가지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정혜옥, 2010). 심리학적 요인은 ADHD 발병에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도 존재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양육환경은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강미애, 2005; 손은희, 2010). 특히, ADHD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력 부족은 부모를 자주 화나게 하고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으로 아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은 아동은 더욱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행동 양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부모와 ADHD 아동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유경자, 2015). 이와 관련하여, Bettelheim(1973)은 취약성-스트레스 이론을 제안하면서 아동의 과잉행동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결합되면 ADHD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Barkley(1998)는 약물을 통해 아동의 과잉행동이 감소하면,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인 처벌과 명령 등을 감소하게 됨을 근거로 부모와 ADHD 아동 간 관계는 양방향적임을 주장했다.

신경학적 요인은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ADHD 원인을 신경학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한상순, 2009; 정혜옥, 2010; 김유숙 외, 2010; 김청송, 2015; 정유진 외 2017;

Gottlieb and Halpern, 2002). 이들은 주로 전두엽의 기능적 손상이 ADHD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ADHD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의 문제 증상이 전두엽 손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이슬아, 권석만, 2017; 정유진 외, 2017)

Barkley, 2011). 또한 전두엽은 의식적 사고와 계획, 기억, 의도적 행동, 통제된 주의, 언어 등을 관장하는데 전두엽이 손상되면 감정조절이 어렵고 통제되지 않는 과잉행동을 하게 된다(Barkley, 2011). ADHD 원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ADHD는 다양한 원인들의 다양한 사회관계의 패턴으로 잠재적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ADHD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ADHD 성향 아동을 “주의집중력 결핍, 충동성, 과잉행동의 반복적 증상이 연령발달에 맞지 않게 나타나는 아동”으로 보았다. 또한 객관적인 ADHD 성향 아동 선별을 위해 K-ARS 부모용 척도 점수 19점(ADHD 의심군)을 선별기준으로 하였다.

ADHD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충동성의 반복적인 증상에 아무런 치료가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ADHD 증상이 고착화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반항, 우울, 품행장애 등의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이효신, 2000; 박미영, 2016). 따라서 ADHD 아동을 위한 적절한 치료시기와 방법이 요구된다. ADHD의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행동수정, 부모교육, 미술치료 등이 있다. 그 중 미술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재활, 정신치료가 미술활동으로 인격의 통합, 미술매체와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인치료 하는 작업 활동이다(강미애, 2005). 미술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근매, 최인혁, 2008; 주리에, 2000)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차현희, 2013). 이에 ADHD 아동들을 위한 미술치료는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해 효과성이 주장되고 있다.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ADHD 아동증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미술치료로 인해 감소한 증상들로는 아동의 주의집중력, 충동성, 과잉행동 및 자리가탈 행동, 정서조절 문제 등이 있다. 반면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영향 미쳤다는 결과도 있다. 우선 증상감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잉행동하는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시행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서주연, 2011).

2) 아동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인 방어기제를 허물지 않고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의 억압된 정서를 안정된 정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김미주, 2014). 특히 아동의 짜증이나 화남, 불안, 분노를 손의 움직임 운동으로 그리기, 만들기로 억눌린 정서를 해소하게 된다(김대현, 2015).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안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키며 생활부적응으로부터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표현하게 하므로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노윤아, 2016). 안정된 정서를 통해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과잉행동을 조절하고(정수지, 2010). 치료자와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회복하며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학습에 익숙해 질수 있다(김인자, 2012)

반면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자기 존재감 상승, 사회성 향상 등에 효과 있는 연구들이(홍강의 외, 1996; 김인홍, 2006; 송찬원 외, 2006; 여광웅 외, 2006) 발표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미술심리치료는 아동에게 미술활동을 통해 언어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과 또래와 타인에게 의사소통하는 대화 방법을 찾아 갈 수 있고 내면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스스로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ADHD 성향을 가진 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의 대상을 중심으로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성,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많았으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초기에 개입하지 못하면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 주장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재활, 정신치료가 미술활동으로 인격의 통합, 미술매체와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 작업 활동이다(강미애, 2005). 즉 미술치료는 작품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김유진, 2007) 비언어적인 활동으로 아동들이 접근하기 쉽고 흥미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김광래, 2010). 또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만족을 경험하여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박세라, 2015). 더불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완성된 작품으로 자기이해와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성수, 2008).

따라서 ADHD 성향의 아동은 다양한 미술재료를 만지고 접하면서 촉감으로 느끼고 오감을 통해 미술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어 ADHD 아동의 주의산만과 주의집중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효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희정, 2013; 김미라, 2014; 계희정, 2015).

아동의 미술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재활, 정신치료가 미술활동으로 인격의 통합, 미술매체와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인치료 하는 작업 활동이다(강미애, 2005). 즉 미술치료는 작품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김유진, 2007) 비언어적인 활동으로 아동들이 접근하기 쉽고 흥미롭게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김광래, 2010). 또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만족을 경험하여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임지향, 조기현, 2005; 박세라, 2015). 더불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완성된 작품으로 자기이해와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성수, 2008).

또한 미술치료는 감각적 재료로 접근하고 느낌, 감정, 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어 창조성이 발휘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주리에, 2010; 임정은, 2015).

ADHD 아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물치료, 행동치료, 부모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치료방법들은 주로 아동의 주의력결핍, 공격성, 과잉행동, 충동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치료 참여가 수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미술치료는 억압된 정서를 완화시켜주고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의 생각, 감정, 느낌을 이끌어 내며 특히 아동들의 불만이나 짜증들이 미술을 통해 해소되어 위축된 정서를 안정된 정서로 변화시키는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미술 놀이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주리에, 2000; 이근매, 2008)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차현희, 2013). 이에 ADHD 아동들을 위한 미술치료는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해 효과성이 주장되고 있다.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ADHD 아동증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미술치료로 인해 감소한 증상들로는 아동의 주의집중력, 충동성, 과잉행동 및 자리이탈 행동, 정서조절 문제 등이 있다. 반면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영향 미쳤다는 결과도 있다. 우선 증상감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잉행동하는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시행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서주연, 2011).

특히 주의집중이 부족한 아동에게 미술치료는 아동의 그림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욕구 표현, 아동의 환경에 대한 재회경험 표현, 자아상의 표현, 창조사고의 표현, 욕구의 표현, 태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주의집중과 과잉행동개선에 효과가 있다(김동현, 최외선, 2002; 송찬원 외, 2006; 김응갑 이근매, 2007; 최외선 외, 2009).

이와 관련하여 산만한 행동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결과, 아동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태도가 변화하였고 과제집중력이 향상되어 사회활동 과정에서 과잉행동과 산만한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정서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진옥, 2004).

문업휘(2004)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자리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주위에 친구를 괴롭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아동은 자리 이탈과 과잉행동 감소를 보였다. 특히 이 연구는 색칠하기, 자유화, 소조활동에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인 방어기제를 허물지 않고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의 억압된 정서를 안정된 정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김미주, 2014). 특히 아동의 짜증이나 화남, 불안, 분노를 손의 움직임 운동으로 그리기, 만들기로 억눌린 정서를 해소하게 된다(김대현, 2015).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안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키며 생활부적응으로부터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표현하게 함으로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노윤아, 2016). 안정된 정서를 통해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과잉행동을 조절하고(정수지, 2010), 치료자와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회복하며(오난영, 2005)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학습에 익숙해 질수 있다(김인자, 2012).

반면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개선과 자기존재감 상승, 사회성향상 등에 효과 있는 연구들이(여광웅 외, 2006; 김인홍, 2006; 송찬원 외, 2006; 홍강의 외, 1996) 발표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미술심리치료는 아동에게 미술활동을 통해 언어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과 또래와 타인에게 의사소통하는 대화방법을 찾아 갈 수 있고 내면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스스로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취학 전 아동은 S시에 소재한 C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6세 남아이다. 연구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주의집중력 문제와 과잉행동 문제를 보여 왔으며, 소아정신과 검사결과, ADHD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어린 연령으로 아동기의 일시적인 증상인 경우도 있음으로 지속적인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권유받아, 2019년 3월 5일 연구자는 연구대상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K-ARS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6점으로 선행연구(양영희 외 2008; 강민경, 2017)의 ADHD 선별기준인 19점을 충족하였다. 또한, 경력 13년 이상의 미술치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 대상으로서 해당 아동이 적합함을 확인 받았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S시 00미술치료센터에서 2019년 3월 5일 사전면담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2019년 3월 5일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총 16회기(사전, 사후검사 포함)를 실시하였으며 주 1-2회, 약 50분간 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 아동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정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DuPaul(1991)에 의해 개발된 ARS(ADHD Rating Scale)를 소유경 외(2002)가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김영신 외(2003), 김재원 외(2004), 양영희 외(2008), 김상아와 하은혜(2016) 그리고 강민경(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ADHD 평가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 이하 K-ARS)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면밀한 관찰

을 위해 채경문(2015)과 최서린(2017)의 관찰지의 관찰항목과 내용을 본 연구에 맞도록 미술 치료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재구성한 관찰지를 사용하였다.

4. 미술치료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2019년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2달 간 진행되었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주 1-2회, 약 50분간, 14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총 16회기가 실시되었다.

연구에서 실시된 미술치료프로그램 내용은 ADHD 아동을 선정하여 대상으로 실시된 미술심리치료 선행연구(이근매, 2003; 임영미·이근매·송호준, 2015; 박미영, 2016; 강민경, 2017)를 참고로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과 발달정도, 선호매체 그리고 연구목적에 알맞게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미술치료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설계되었다. ADHD 성향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과잉행동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별 목적과 회기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미술치료프로그램 단계 및 회기별 내용

단계 및 목표		회기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매체
초기 단계 라포 형성과 흥미 유발		1	사전검사	자유화	자유선택
		2	난화그리기	낙서를 통해 내면을 표출하고 자신을 지각한다.	도화지, 크레파스
		3	나를 소개해요	콜라주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잡지, 풀, 싸인펜
		4	이름표 만들기	치료사와 연구 참여자 각자가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정하고 이름표를 만들어 착용한다.	자유선택
중기 단계	주의 집중력	5	종이 찢어 공 만들기	종이를 찢고 뭉쳐 공을 만들고 치료사와 상호 활동한다.	종이, 테이프
		6	찰흙 던지기	찰흙으로 공을 만들고 벽에 던지를 활동을 한다.	찰흙
		7	높은 빌딩 만들기	우드락을 격파하고 조각으로 높은 빌딩을 만든다.	우드락, 글루건
	향상	8	휴지죽 만들기	휴지를 물에 풀고 다양한 색을 내어본다,	휴지, 물, 물감
		9	날아라! 종이비행기	종이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활동을 한다.	도화지, 싸인펜

과잉행동감소	10	만다라 색칠하기	만다라 도안을 선택하고 꼼꼼히 색칠해본다.	만다라 도안, 싸인펜
	11	과녁 맞추기	찰흙 공으로 과녁 맞추기 활동을 진행 한다.	과녁, 찰흙
	12	넘어가면 안 돼요	검은 선으로 구역을 정하고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색을 칠한다.	도화지, 크레파스
	13	3개의 소원 열매	소원 3개를 열매로 만든다.	식고, 종이, 싸인펜
종결단계 주도성 확립	14	보물 상자	나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꾸민다.	박스, 자유선택
	15	상장 만들기	자신의 상장을 만들어 본다.	상장종이, 자유선택
	16	사후검사	자유화	자유선택

IV. 연구결과

1. K-ARS 점수의 변화

ADHD 성향 아동의 부주의성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용 K-ARS 척도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점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표 2> 참조).

미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부주의성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부모용 K-ARS 검사결과, 연구 참여아동의 ADHD 성향은 사전 26점에서 사후 18점으로 감소하였다. 즉, 미술치료는 연구 참여자인 아동의 ADHD 성향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하위영역 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미술치료는 연구 참여아동의 부주의성을 15점에서 13점으로 감소시켰으며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11점에서 5점으로 감소시켜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아동의 부주의성보다 과잉행동 및 충동성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부주의성 하위영역의 경우, 1차 검사에 비해 2차 검사 결과가 2점 향상하였고 4차에 비해 5차에서 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K-ARS 검사 결과

구분/점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부주의성	15	17	14	12	13
과잉행동 및 충동성	11	9	9	6	5
전체점수	26	26	23	18	18

더불어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1차에 비해 2차 점수가 2점 감소하였으며 4차에 비해 5차 결과에서는 1점 감소한 결과를 근거로, 과잉행동 및 충동성 감소를 목표로 실행되지 않았던 프로그램에서도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포형성과 흥미유도를 목표로 실행한 프로그램과 주도성을 확립하기 위해 규칙과 프로그램 내용 및 재료 구체화에 자율성을 부여한 경우,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감소한 것이다.

즉, 선호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소 즐겨하는 혹은 하고 싶던 작업진행은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참여아동 행동의 변화

미술치료 연구 결과 참여아동의 행동변화의 질적 측정을 위해 종결단계의 프로그램 연구자와 아동의 모는 정기적 관찰사항을 기록하여 변화행동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관찰사항은 K-ARS의 문항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관찰결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 초반에 나타났던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은 회기를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관찰 항목에서 연구아동의 행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모와 연구자의 관찰사항이 다소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모는 과제할 때 산만함을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연구자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정과 놀이 시간에서의 집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아동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다고 관찰하였으나 연구자는 치료시간에서 과제 소개와 주의사항을 소개할 때 끝까지 치료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모에게 주로 누구의 어떠한 말을 경청하지 않는지 질문하였을 때, 모의 잔소리나 수행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청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아동이 관심과 흥미가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 보다는 과제중심적인 이야기에 더

집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DHD 성향 아동의 경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제 중심적이며 긍정적, 흥미위주의 이야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여부에 대해서도 연구자와 모는 다소 상이한 관찰결과를 내놓았는데, 모는 다소 좋아졌으나 여전히 어려운 과제에 대해 피하고 싫어한다고 관찰하였고 연구자는 싫어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과제의 난이도와 아동의 흥미도를 고려했을 때,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시적 과제가 주어졌을 때, ADHD 성향 아동의 끈기과 인내는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전히 많은 말을 하는 아동을 면밀히 관찰 한 결과, 과제와 관련된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아동은 말의 빈도는 비슷하나 그 내용과 목적지향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연구 참여아동의 행동변화

K-ARS 문항	모	연구자
1. 어린이집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못해 부주의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졌다, 실수가 적어졌다.	놀이 참여에 친구들과 다툼의 적어졌고 한참을 친구들과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2. 손발을 계속 움직여 산만함을 보이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여 고 몸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손발의 움직임이 적어졌고 몸흔드는 것이 줄어들었다.	가만히 앉아 조용히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고 몸의 꿈틀거림이 적어졌다
3. 놀이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과제할 때 가끔 산만함을 보인다.	새로운 놀이를 기다리고 놀이가 시작되면 산만함은 보이지만 재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4.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것은 줄었으나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워했다.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돌아다니면서 수업 방해 요소가 감소하였다.
5. 학부모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아직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제 소개나 주의사항에 집중하여 경청한다.
6.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뛰거나 높은 곳을 올라 뛰어내린다.	뛰어다니는 충동성은 감소하였다.	5회부터 충동성 감소하고 외부 자극에도 산만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7. 장난감을 정리를 잘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놀이 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활동 후에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8.정서적인 놀이나 음악,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불안감이 있을 때 제외하고 잘한다.	음악을 틀고 놀이할 때 아이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고 동요는 따라 부르면서 놀이에 참여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9. 지속적인 과제나 학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다소 좋아졌으나 가끔은 피하거나 싫어한다.	좋아하는 것은 집중해서 잘한다. 싫어하는 것도 참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10.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은 여전히 많이 한다.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본인이 쓸데없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11.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잊어버린다.	자기 물건을 챙기려고 노력한다.	수업에 필요한 도구나 수업준비물을 잘 챙겨 가지고 온다.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12.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한다.	조금은 좋아진 것 같다.	수업할 때 방해 요소가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활동을 끝까지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13.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순서를 기다린다.	연구자의 진행순서를 기다리고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14.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준비물을 잘 챙긴다.	집에서도 자기 물건 정리하고 청소와 미리 준비물 챙기는 모습이 보인다는 엄마의 말씀도 있었다.
15.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연구자의 말에 끼어들어 수업이 어려웠던 부분이 감소하였고 다음 진행을 침착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다.
16.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조금 듣고 대답한다.	다른 사람의 활동에 참견하는 모습이 줄어들었고 질문은 끝까지 듣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17. 학습에 관련된 과제나, 책보기를 싫어한다.	조금은 어려워한다.	지속적인 활동에 반복 학습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18. 모터가 달려있는 것과 같이 행동이 빠르고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행동에는 조금은 차분해진 것 같다.	행동은 빠르지만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미술치료 단계별 아동의 표현 및 소통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미리 구성된 관찰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및 작품표현 그리고 치료사와의 소통 등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K-ARS 척도 검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K-ARS 척도 검사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초기단계, 중기1단계, 중기2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4단계 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아동은 초기단계에서 외부자극에 자주 반응하고 치료실 구석에 앉아있는 관찰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치료사의 말을 경청하고 프로그램 설명에 집중하는 듯 보였으나 설명이 끝나기 전 자리를 이탈하거나 미술활동과 관계없는 이야기(어린이집 친구나 선생님, 아침식사 이야기 등)를 두서없이 꺼내기도 하였다.

1회에서 3회기까지는 친밀감과 흥미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유화 그리기, 음악을 들으면서 낙서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였다. 잡지책을 이용하여 아동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찾게 함으로 아동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다.

또한 4회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아동은 “이건 뭐예요? 나 이거 다 써도 되요? 앗! 이걸 또 뭐지 우와!”라고 계속 중얼거리며(치료사에게 질문하기보다 혼자 말하는 특성임) 매체를 선택한다는 개념보다 이것저것 사용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다. 그래도 아동은 자신이 꾸민 이름표를 치료사에 걸어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상호작용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이와 같이 초기단계에서는 라포형성과 흥미유발을 목적으로 설계 되었는데 연구대상 아동이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신뢰감과 유대관계가 저항 없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5회기에서는 큰 신문지로 아동 마음대로 찢게 한 후 찢는 소리듣기, 꾸기기, 찢은 신문가지고 하늘로 날려보기. 흩어진 신문지 비닐봉지에 담기, 모은 신문지 테이프로 공을 만들어 던지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해보았다. 아동은 “선생님 신문 찢을 때 번개소리가 나요” 신나게 신문지를 정신없이 찢고 있었다.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이완된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종이 찢어 공 만들기 작업은 아동에게 분노감정 해소와 자기정서인식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시간 이었다.

6회기에서는 찰흙으로 다양한 크기로 동그란 공을 만들고 찰흙을 던지면서 화나는 것, 짜증나는 것, 힘든 감정을 날려보는 놀이로 공격성 표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업을 하였다. 찰흙으로 공을 만드는 과정 중에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할 수 있고 아동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두드리고, 치고, 주무르는 동안 촉감을 통해 공격 에너지가 해소가 되어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작업 활동으로 오감을 자극

하여 정서를 함양하는 도움이 되었다.

7회기에서는 주의집중력, 긍정적 사고로 바꾸기 위해 높은 빌딩 만들기를 하였다. 우드락으로 격파하여 조각을 내고 아동이 자신만의 탑을 쌓아 본 후 자신이 만든 탑을 보고 신기해하며 “나는 이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빌딩 사야지” 혼자 말로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아동에게는 성취감과 자아존재감이 승화되는 시간 이었다. 중기 1단계에서 연구 참여아동은 주의집중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치료사의 활동설명을 끝까지 듣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치료사가 요구하는 과제보다 더욱 끈기가 요구되는 활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빈도 역시 감소하였다.

8회기에서는 표현력 향상과 자기표현, 집중력 향상을 위해 휴지를 물에 풀어 손으로 만져 휴지의 촉감을 느껴보고 휴지 속에 물감을 풀어 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2색의 물감의 변화를 보고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아동의 내면의 감정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8회기 활동에서는 아동은 관찰자인 연구자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다(평균 1회기 당 4-12번 정도 관찰자와 소통을 시도함). 특히, 본인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한 작업에서는 단시간이지만 끈기와 집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이탈하고 다리를 떨거나 몸을 흔드는 정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매체를 제시하면, 치료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먼저 재료를 만지려는 행동이 눈에 띄게 관찰되었다. 중기 2단계에서 연구 참여아동은 치료사와의 의미 있는 소통이 상당히 향상되는 특성을 보였다.

9회기에서는 자존감향상과 신뢰감 형성하기 프로그램으로 종이비행기 만들었다. 엄마와 아빠와 놀이공원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 놀이기구 탔을 때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도화지에 아동이 멀리 날리고 싶은 곳을 그리고 아동이 날리고 싶은 곳을 향해 만든 비행기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 음악과 함께 하늘을 비행하는 비행기동작도 아동과 함께 하면서 아동의 심리를 안정시켰다. 아동은 정서를 표현하는 말과 치료사의 기분을 살피는 질문을 주로 하였다. 더불어 “선생님은 언제가 기분이 제일 날 것 같았어요?”라는 질문을 하여 타인감정인식과 회기 중심주제인 “난다(fly)”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였다.

10회에서는 내적 사고와 정서표출로 만다라를 진행하였다. 먼저 아동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러 장의 만다라 그림을 보여주고 아동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여 선택한 도안그림을 꼼꼼히 색칠하게 하였다. “나는 빨강색이 좋아, 빨강색이 좋아” 흥얼거리면서 색칠을 열심히 하였다. 색칠하는 동안 아동은 참고 인내하는 것과 그린그림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색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색은 무엇인지 말하게 하였다. 10회

기에서는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1회기에서는 내적사고와 정서표출로 과녁 맞추기를 하였다. 아동이 던지기 쉬운 곳에 과녁을 준비하여 벽에 걸어놓고 숫자 1-10까지 쓰고 그 안에 10을 맞추는 게임이다. 시작점을 지정해 주고 지정된 곳에서만 던지는 원칙을 세워두었다. 아동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승부욕에 집착하다보니 아동은 과녁에 맞추어지지 않을 때 과녁게임을 하다가 “아이 짜증나 왜 안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였다. 차분히 집중하기를 통해 나쁜 감정을 찰흙 공으로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였다. 아동은 치료사에게 “너무 재미있어요.” 더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치료사는 아동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었다.

12회기 때, 아동은 정해진 구역에 각기 다른 색을 칠하는 활동에서 “선생님은 어떤 색을 좋아해요?”하고 치료사에게 질문하였다. 그간 아동은 치료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곤 했었으나 그 회기에서는 치료사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치료사는 “나는 빨강색을 좋아해”라고 답하였고 이에 연구 참여아동은 “어! 나랑 똑같네!!”라고 말하며 빨강색 크레파스를 들어 색칠했다. 회기가 끝나고 치료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모에게 달려가 연구 참여아동은 “엄마! 선생님도 나랑 똑같이 빨강색이 제일 좋네!”라고 말했다.

13회기에서도 소통 향상과 충동성 감소는 관찰되었다. 소원 3가지를 열매로 만드는 작업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 하던 아동은 역시 “선생님은 소원이 뭐예요?”라고 물어봤고 치료사는 “음... 건강한 거...”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동은 “선생님은 어디가 아파요?”라고 다시 질문해 치료사는 웃으며 “아니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싶은 거야. 할머니가 되어도.”라고 대답했다. 그 뒤로 3번 정도 아동은 치료사의 대답과 연관된 질문을 하여 의미 있는 소통이 향상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석고를 사용하여 열매를 굳히는 과정에서 “만지면 안 돼 아 직은...”라고 중얼거리며 5분 정도를 기다리는 행동이 관찰되어 충동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14회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로 주도성 확립과 긍정적 감정 평가를 하였다. 아동의 보물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고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자신이 정한 보물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꾸미기도 하였다. 재료는 자유롭게 아동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만들어진 상자는 어디에 보관 할 것인지 자물쇠 보관장치는 어느 정도 수위로 설정할 것인지 보물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결정 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은 모에게 보여주겠다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치료사에게 대답하였다.

15회기는 주도성 확립과 긍정적 감정평가로 상자 만들기 하였다. 그동안 프로그램에 대해

회상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장을 만들어 보았다. 아동의 장점을 찾아보고 상장의 내용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아동의 상장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치료사는 아동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가족 앞에서 해 주었다.

16회기 종결단계에서도 연구 참여아동은 자리 이탈과 의미 없는 말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재료 자유선택에서 여전히 활동목적과 관계없는 재료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등 주의 집중이 어려웠다. 또한 처음부터 과도한 과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빨리 포기하고 과제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도 빈번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순서를 기다리고 말의 빈도와 행동의 크기가 다소 감소되었는데 특히,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다른 과제로 변경할 때, 그 간 화를 내거나 작품을 내던지는 행동을 보이던 아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재료를 던지거나 화를 내며 책상을 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언어적 표현으로 “아 나는 바보야!!”라고 소리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초기에 비해 종결단계에서 아동은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치료사와의 라포형성으로 치료실로 들어오며 치료사의 기분이나 의복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그와 연관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 역시 관찰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문제가 있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행하고 미술치료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용 K-ARS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아동의 부주의성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미술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자세히 측정하기 위해 사전, 초기단계 종료 시, 중기1단계 종료 시, 중기2단계 종료 시 그리고 마지막 회기 종료 후에 실시되었다. 더불어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별 관찰사항을 토대로 연구대상아동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부주의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애(2002)와 류정자, 최혜경(1998)의 미술치료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 문제와 행동 개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주제를 보였으며 부주의영역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윤영임(2001)의 연구에서 미술치료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주고 지지를 통해 공격적인 모습을 순화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연구결과는 일치한다.

둘째, 관찰사항을 통해 관찰된 아동의 행동변화는 초기단계에서 외부자극에 자주 반응하고 치료실 구석에 앉아있는 관찰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중기 1단계에서 연구 참여 아동은 주의집중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치료사의 활동설명을 끝까지 듣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치료사가 요구하는 과제보다 더욱 끈기가 요구되는 활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중기 2단계에서 연구 참여 아동은 치료사와의 의미 있는 소통이 상당히 향상되는 특성을 보였다. 종결단계에서도 연구 참여 아동은 자리 이탈과 의미 없는 말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집중이 어려웠다. 또한 처음부터 과도한 과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과제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도 빈번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순서를 기다리고 말의 빈도와 행동의 크기가 다소 감소되었는데, 특히,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다른 과제로 변경할 때, 그간 화를 내거나 작품을 내던지는 행동을 보이던 아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재료를 던지거나 화를 내며 책상을 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위의 기술한 연구결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ADHD 아동에게 다양한 매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K-ARS의 부주의성 1차 검사에 비해 2차 검사 결과가 2점 향상하였고 4차에 비해 5차에서 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였거나 매체선택에서 자유를 부여한 프로그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다양한 매체와 과도한 선택의 기회는 ADHD 성향 아동의 부주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행동관찰에서도 주의집중영역은 행동의 개선이 보인 반면 부주의성 문제가 빈번히 관찰되기도 하였다. 김선정(201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미술치료를 하였을 때 주의력향상과 과잉행동,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고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반면, 다양한 미술도구를 사용하여 미술치료를 실행했을 경우 산만함을 볼 수 있고 통제가 어려워 행동관찰 방법에서 객관적인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다(원상두·김임렬·이민규, 2015). 특히 이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특징은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한곳에 오랜 시간으로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려면 마무리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번에 한 가지씩 끝낼 수 있는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첫째로 다양한 매체활용은 아동의 부주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실험적 탐색적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자율성을 부여한 미술치료가 과잉행동과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아동 스스로 미술재료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1차에 비해 2차 점수가 2점 감소하였으며 4차에 비해 5차 결과에서는 1점 감소한 결과를 근거로, 과잉행동 및 충동성 감소를 목표로 실행되지 않았던 프로그램에서도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포형성과 흥미유도를 목표로 실행한 프로그램과 주도성을 확립하기 위해 규칙과 프로그램내용 및 재료구체화에 자율성을 부여한 경우,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감소한 것이다. 즉, 선호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소 즐겨하는 혹은 하고 싶던 작업진행은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ADHD 아동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미술치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공격성과 부적응 문제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표현에 관계된 것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에 의해 선택하고 아동의 욕구를 어른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공격성이 분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아동이 주도성을 가지고 규칙과 프로그램내용, 재료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진행했을 때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자존감증진, 사회성향상 등에 효과가 있었다(김동연·이순·최은, 2000).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아동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경우, 연구 참여아동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이 연구 결과는 관련된 유사연구 결과(김동연·이순·최은, 2000; 윤영임, 2001; 김선경, 2013)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측정도구인 K-ARS를 사용한 ADHD 성향 학령기 아동대상 미술치료 중재 선행연구의 변화와 본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해 학령전기 ADHD 성향 아동의 조기개입의 효과성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강민영(2017)의 연구에서는 활동중심의 집단 미술치료를 통해 ADHD 성향의 초등학생 1-3학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2명의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12회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측정도구로는 K-ARS와 자기조절검사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K-ARS 척도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평균 12.83, 부주의는 11.33 이었다. 사후검사에서는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평균 10.00, 부주의는 8.67로 각각 2.83, 2.66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RS 척도 사전검사에서 과잉행동 및 충동성 11점, 부주

의 15점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 과잉행동 및 충동성 5, 부주의 13으로 각각 6, 2점 감소하였다. 물론, 선행연구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미술치료프로그램이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과 상이했다. 또한 선행연구는 12회기 그리고 본 연구는 16회기로 단편적으로 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선행연구에 비해 2배가량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양육의 변화와 단기개입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이수진(2012)의 연구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일단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강상경 외(2009)의 주장을 감안하면 조기개입의 필요성 뿐 아니라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면 ADHD 성향 아동의 조기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16회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결 후에도 아동의 주의력부족, 과잉행동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지속적인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동이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그 변화에 대한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관련 실증적,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ADHD 성향 아동의 조기개입에 대한 필요성의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강미애(2005).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성향 아동의 주의집중, 공격성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경(2017). 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가 ADHD성향 아동의 주의집중력 및 자기조절에 대한 효과.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희정(2015). ADHD 성향이 있는 아동의 입체조형 활동 중심 미술치료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정(2013).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소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건강보험 심사평 통계 2020년 자료.
- 권석만(2014).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래(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현(2015). 만다라 탠그램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정서안정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연(2000). 또래협동 미술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과 사회 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7(1), 139-163.
- 김미경·문장원·서은정·윤점룡·윤치연·이상훈(2007).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 김미라(2014). 소조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8(4), 57-77.
- 김선정(2010). ADHD 아동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중재연구 현황분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13). ADHD 아동을 위한 발달 접근의 음악치료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2(1), 53-74.
- 김선현(2011). ADHD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주: 이담북스.
- 김응갑·이근매(2007). 소조활동중심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공격성 및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3(2), 43-62.
- 김인자(2012). 발달신경심리학적 분석에 의한 미술치료연구: 장애 및 부적응 아동 중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홍(2006).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5(2), 152-160.
- 노운아(2016). ADHD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정서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16). 대상관계 집단미술치료가 취학 전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라(2015).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유아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주·박신정·황성동(2015). 한국 학령기 ADHD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중재의 효과 연구: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5(2), 169 - 182.
- 박현이(2020). 입체조형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ADHD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숙경·김택호(2016).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 증가와 부주의성 및 과잉행동 충동성 감소를 위한 인지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술치료연구*, 23(2), 447-476.
- 배주영(2011). ADHD 아동. 청소년의 물고기 가족화에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임상 미술치료학회연구*, 6(1), 105-121.
- 변찬석·오난영(2004).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주의산만 행동과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효과. *초등특수교육연구*, 6(1), 189-220.
- 서정훈·고영란(2011). 집단미술치료가 ADHD 시설아동의 자기통제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8(2), 36-60.
- 서주연(2011). 아동, 청소년과 성인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비교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유경·노주선·김영신·고선규·고윤주(2002). 부모, 교사 ADHD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1(2), 283-289.
- 송정인·신지현(2011). 집단미술치료가 ADHD 경향이 있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아동지도연구*, 8(2), 27-53.
- 송찬원·변찬석·김경민(2006).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과제 수행 태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 연구*, 22(2), 123-144.
- 신소영·송현중(2016). 아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ADHD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3(1), 33-65.
- 안동현·김세실·한은선(2004).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서울: 학지사.
- 윤은주·이미옥(2010).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성향이 있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6), 1311-1331.
- 윤치연(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장기 결과 고찰. *학습장애아동 교육*, 19(4), 227-241.
- 이근매(2003).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근매·최인혁(2008).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미경(2014). ADHD 아동의 미술치료에 대한 동향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4(1), 35-55.
- 이성수(2008).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일차적 증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영·최은영(2007). 만다라 기법에서의 매체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이완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술발표회*, 15(2), 77-102.
- 이황은(2006). ADHD 아동의 미술활동에 나타난 미술치료의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6(1), 75-120.
- 임영미·이근매·송호준(2015).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7(2), 257-28.
- 임지향·김은정·신지현(2015). ADHD 아동의 애착과 문제행동을 위한 치료놀이를 활용한 미술치료 단 일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545-572.
- 정수지(2010). ADHD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신체활동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주(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치료적 의미. *미술치료연구*, 23(5), 1221-1237.
- 주리애(2000).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차현희(2013). 뇌기능분석을 통한 만다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뇌파 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문(2015). 지적장애 중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활용 미술치료 사례 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서린(2017). ADHD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대상관계 미술치료 사례 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이미옥(2004).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1(2), 211-229.
- 홍강의·김종훈·신민섭·안동현(1996). 주의산만, 과잉운동을 주소로 소아정신과를 방문한 아동의 진단 분류와 평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90-20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kley, C. (1990). Biological factors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r Therapist*, 11, 47-53.
- David B, Stein. 2012. “ADHD는 병이 아니다” 윤나연 번역. 서울: 전나무숲. (원저 2001 출판).
- Dupaul, G. J. (1991). Parent and teacher ratings of ADHD symptom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ommunity based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 245-253.
- DuPaul, G. J. & Stoner, G. D.(2003). *ADHD In the school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 Mash, E. J. & Wolfe, D. A.(1999). *Abnormal child psychology*. Thomson Learning.
- 조춘, 송혜, 조재공역(2003). *아동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스
- .Meichenbaum D. H. & Goodman J.(1971). Training impulsive children to talk to themselves: a means of developing self- 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2), 115-126.

- Pelham, W. E.(1999) What do we know about the use and effects of CNS stimulants in the treatment of ADD. In Loney, J.(ed.) (1987). *The young hyperactive child: answers to questions about diagnosis, pro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Haworth.
- Rapport M. D, Stoner, G., George J. DuPaul, G. J., Kelly, K. L., Tucker, S. B. & choeler, T.(1988). *Attention deficit disorder and methylphenidate: a multilevel analysis of dose-response effects on children's impulsivity* *Psychiatry*, 27(1), 60-69.
- Sprafkin, J. & Rubenstein, E, A. (1982). Using television to improve the social behavior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J. Sprafkin, C. Swift, and R. H. Ross(Ed). *Prevention in Human Service*. NY. Haworth.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bstract

A Disordered Child of Hyperactivity and Attention Deficit for the Study of Art Therapy and Single Example Case: In the Center of a Preschool Child

Kim, Young Ian* · Jang, Sung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HD-oriented preschool children on hyperactivity and attention deficit by implementing art therapy programs for preschool children and to prepare basic data for early interven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6-year-old boy who was attending C daycare center located in S city and had persistent problems due to excessive behavior and careless behavior. The art therapy program started with a preliminary examination on March 5, 2019 and proceeded for a total of 16 sessions until May 7, 2019.

As a result of implementing the art therapy program, first, the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ith ADHD was effective in reducing carelessness, hyperactivity, and impulsivity. The K-ARS scale pre-test scores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decreased by 8 points from 26 points to 18 points for the post-test. In the observational records for each period, meaningful interaction and self-discipline improvement were observed among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Seco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decrease in hyperactivity and impulse and the decrease in carelessness were different. Children with ADHD tended to become inattentive to a variety of media and programs with excessive choices. In addition, the use of preferred materials and the usual interesting work progress reduced the hyperactivity and impulsivity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senting various media to ADHD children, and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n art therapy program that gives autonomy to hyperactivity and impulse reduction can be effectiv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on approaches to art therapy for all children.

Key Words: Hyperactivity, Impulsivity, Inattention, ADHD, Art therap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